

코로나(Covid-19) 확진자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의미: 코로나 발생 초기 상황을 중심으로

박성진*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 시대는 수많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산하고 아울러 다양한 폭력을 양산하여 왔다. 하지만 수많은 폭력이 폭력으로 인정되거나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이론을 중심으로 판데믹 상태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본다. 지라르의 분석에 따르면, 페스트가 휩쓴 유럽의 사회가 그러했고 스페인 독감 시기도 그러하였으며 금번 코로나 19시대도 마찬가지로 폭력은 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위기는 문화적인 것의 소멸을 가져오고 체제 내부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무력감은 선입견을 생산하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들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위기의 시대 폭력은 중간층에서 멀리있는 집단으로 향한다. '사회적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평균적인 사회적 신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위기의 시대에 발생하는 폭력, 즉 혐오와 배제 낙인찍기를 비롯한 수많은 구조적 폭력은 분명히 억울한 희생양을 만드는 집단적 테러이고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희생양을 만들어 그들에게 폭력을 집중시키는 '희생제의' 적 '폭력속임'을 통해 사회는 집단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무차별적인 폭력을 피해왔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앞으로 공포의 일상화 속에서 그리고 늘 다음 판데믹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하며 위기의 시대, 폭력과 폭력의 속임 그리고 희생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폭력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주제어: 코로나, 위기, 폭력, 희생양, 르네 지라르

*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어떤 처방도 취할 수 없는)
그것은 단지 병일 뿐
사람들은 이를 에피데미라 부른다.
기욤 드 마쇼

1. 들어가며

2020년 2월 18일 한국에서는 서른 한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코로나 19의 1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으며 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에 대한 불안을 심어주었다(Rogg 2020, 54-67).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 공간들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으로 작동되기를 멈추었고 시민들의 생활체계 전반이 재편되었다(김홍중 2020, 164). 또한 전통적인 가치들, 즉 만남이나 교류 그리고 연대 등의 가치들이 그 작용을 멈추었거나 모두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켰으며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와 이전을 구분하며 지금까지의 가치체계와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거대한 체계의 변화와 충격이었다. 팬데믹 상황은 세계 대공황과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였고 위험이었다(Roloff 2020, 27). 하지만 기존의 위기와 금번 위기가 극명하게 다른 점은 기존의

위기들은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며 ‘적(敵)’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가공할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생활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와 위기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공포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폭력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 코로나(covid-19) 상황도 수많은 폭력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Krishnadas & Taha 2020, 46-58). 하지만 전염병과 폭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나 반달리즘(vandalism)에 집중되어 있다.¹⁾ 실제로 현대사회의 폭력은 물리적 방식만이 아니라 구조적 방식으로도 나타나며 미시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또한 폭력의 양상은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며 집단적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폭력적 기제들이 침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Krishnadas & Taha 2020, 46).

역사적으로 사회적 위기의 시대 그리고 그 위기가 수많은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산하며 책임과 잘못을 물어야 할 존재가 불명확한 상황은 늘 다양한 폭력을 양산하여 왔다. 판데믹의 공포에 던져진 한국 사회도 수많은 폭력이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폭력이 폭력으로 인정되거나 인식되지 못하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집단적 폭력의 구조를 의도적이든 그렇지

1) 코로나 상황에서의 여성들에게 향한 폭력에 대한 보고서로는 WHO에서 나온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What the Health Sector/System Can D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가 주목할 만하다.

않든 외면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이론을 중심으로 판데믹 상태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물론 판데믹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발현되는 폭력은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공동체가 폭력의 방향을 전환하여 위기를 넘어서고자 시도하는 것이 한국만이 가진 특수한 현상이나 문화적 특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양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또한 단순히 위기의 시대에 발생하는 혐오, 낙인 그리고 차별의 모습에 대해 비판하고 소수자 보호와 포용이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김동택 2020, 54-55)하지도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지라르의 주장처럼, 판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집단적 폭력의 도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지라르 2018, 36)을 밝히고 그 폭력의 윤곽을 한국적 상황에 기반하여 그려보고자 한다.

2. 코로나 시대 폭력의 양상 1 : 문화적인 것의 소멸과 폭력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사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었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감염병으로 인한 충격이 사회 전체에 가해지지는 않았다(보건복지부 2015). 하지만 금번 코로나 사태는 사회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기존의 가치체계는 작동을 멈추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제외한 물리적 만남

을 통한 연대의 의미를 비롯하여 같은 공간에서의 교류라는 개념을 무력하게 하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위기와 절망적 상황은 명백히 확인되나 그 원인과 책임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책임이 모호한 위기의 상황에서 집단은 폭력을 준비하고 그 폭력의 대상을 물색하게 된다. 지라르에 따르면, 위기의 사회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의한 폭력의 발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력의 방향을 돌려서 희생물로 향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라르는 이러한 폭력의 전환은 종교적 제의의 형식을 가진 ‘희생제’로서 위기의 사회에 폭력적인 부분적 만족감을 주어 폭력의 방향을 판 데로 돌리는 것이라 말한다(지라르 2004, 19). 다시 말해서 주류집단은 작은 정체성의 차이를 근거로 희생양을 찾고 폭력과 비난의 화살이 향할 대상을 만든다(Feierstein 2015, 115-127). 다음은 지라르가 분석한 위기사회의 모습이다.

위기는 우선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기를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 그리고 특히 정신적 요인으로써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와해되는 것은 인간 관계인데, 이 관계의 주체인 인간은 그러므로 이 현상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아무 강요도 하지 않은 사회 전체나, 유죄로 덮어씌우기가 손쉬워 보이는 타인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용의자들은 어떤 특별한 유형의 죄악으로 비난받는다(지라르 2018, 28-29).

위의 지라르의 지적대로 판데믹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게 되고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 돌리게 된다. “위기는 거대한 집단적 박해를 낳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당연히, 사회적인 것의 근본적 소멸

과, 문화적 질서를 규정하는 차이들과 규칙의 소멸이다”(지라르 2018, 26).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첫 번째 비난의 대상은 일명 ‘슈퍼 전파자’라고 불리는 31번 환자였다. 61세인 이 여성은 대구에 살고 있었으며 영남권의 첫 번째 코로나 환자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동선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장본인으로 지목받기 시작했다. 이 여성이 다닌 교회(신천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대구는 중국 바깥의 도시로는 최대 밀집 감염지로 주목을 받았고 도시 전체에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분투가 이어지고 있었다(이시철 2020, 9). 이후 모든 비난의 화살은 ‘슈퍼 전파자’로 지목받은 31번 여성에게 집중되었으며 이 여성이 다니던 대구 신천지 교회는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치부되었고 이단과 사이버 종교집단이라는 비난과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은 코이카(KOICA)에서 발표한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체계의 특징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과거 HIV/AIDS, 한센병, 결핵 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현상을 떠올릴 정도로 시민사회는 과도한 경계 짓기와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 역시 대구 지역주민, 신천지 교인에 대한 낙인은 마치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보도와 정보 소통방식은 가히 충격적이고 우려할 수준이다.²⁾

31번 환자와 신천지에 대한 비난과 폭력은 위기의 시대에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에 대한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라르에 따르면, 전염

²⁾ 보고서는 “신천지 교회가 이단과 사이버 종교집단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혐오와 차별로 낙인찍기보다는 전도법의 문제, 가정파탄, 그리고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적 심판을 통해서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동택 2020, 54) 참조.

병이 발생한 위기의 시대는 사람들의 잠자고 있던 선입견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에 의한 박해의 탐욕은 종교적 소수를 향하여 집중된다. 실제로 페스트가 창궐한 시대 유대인들에게 행한 박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지라르 2018, 16). 위기는, 특히 그 원인과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는 우선 사회적인 것의 근본적 소멸과 문화적 질서를 규정하는 ‘차이들’과 규칙을 소멸시킨다. 무차별적인 죽음과 감염의 공포는 차이에 대한 인정과 규칙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러한 무차별성 앞에서 질서는 사라지고 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폭력의 발생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는 고대의 종교적 의식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Stirling 2010, 63). 마치 고대 종교의 제의 기능이 폭력을 순화시키는 것, 다시 말해 폭력을 속여서 복수받을 위험이 없는 희생물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처럼(지라르 2004, 58) 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비난의 폭력은 마치 폭력이 아닌 것처럼 나타난다. 31번 환자와 그녀가 속한 신천지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이었다.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병원, 교회, 호텔 등을 거쳤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여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고 비난하며 비상시기에 예배를 강행한 교회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비난의 조항들은 얼핏보면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대구 사회에 코로나를 퍼뜨린 최초의 전파자란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최근 해외여행 경력이 없던 사람이 바로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만 그녀는 코로나의 집단적 확산의 사태에서 발견된 첫 번째 확진자일 뿐이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이 퇴원을 요구하며 간호사 마스크를 벗기고 몸싸움을 했다는 잘못된 정보까지 유포되며 31번 환자는 그렇게 사회에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³⁾ 61세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주류 교회 사회에서 벗어난 종교집단이라는 이유는 유죄로 덮어씌우기 손쉬운 조건이

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위기는 모든 문화적인 것의 소멸을 가져온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인 것의 소멸은 차이와 규칙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제 장례에 참석했던 사람이 오늘 무덤에 묻히고 신분과 재산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는 전염병은 모든 차이를 소멸시키고 모든 것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든다(지라르 2018, 28). 따라서 문화적인 것의 소멸이 차이의 존중이라는 개념마저 무너뜨리고 복수할 수 없는 대상을 물색하여 비난을 집중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최성희는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교환체계의 상호성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교환의 체계에 의해 성립했던 차이들이 교란되고 무차별화되면서 사라진다. 문제는 “문화적인 것의 소멸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무능함에 대한 느낌 즉 무기력함이 퍼져갈 때 생겨나는 ‘비난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폭력의 시발점이 된다.”⁴⁾

또한 위기의 상황은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욕망을 생산한다. 사람들은 신체적 반응을 통한 욕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산출된 욕망을 가지게 된다.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욕망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방역 규칙을 철저히 잘 지켜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욕망하는 것을 모방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

3) 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15/NB5B4LFO75GXVBYM3IH5VBYPIT (검색일: 2021. 03. 29)

4) 2010년에 작성된 최성희의 논문은 폭력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지라르와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 폭력에 대한 이 연구는 팬데믹 상태의 폭력성을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최성희 2010, 72) 참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견해와 주류 견해를 모방하게 된다(김진석 2013, 65). 그리고 그 모방 욕망의 강도가 커지며 한 공동체 내의 긴장감을 상승시키는데 이 긴장을 상쇄시키기 위해 폭력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발현된 폭력성은 폭력을 받아낼 대상을 찾아 집단적 폭력을 집중시킨다. 언론의 집중을 받고 더군다나 신천지라는 종교집단과 연결된 대구의 31번 환자는 위기의 시대 폭력성을 응축하고 있는 긴장된 사회에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존재였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한 여성을 ‘희생양’으로 만들며 위기를 넘어가고 있었다.

3. 코로나 시대 폭력의 양상 2 : 소속과 체제의 폭력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주춤했을 즈음 한국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감염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사람들의 불안을 다시 증폭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한 인물이 집중을 받게 된다.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언론에 집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표현하는 데는 ‘거짓말 학원 강사’, ‘동선을 숙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고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당시 기사에 나왔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 뒤 코로나19에 걸린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무직이라며 동선과 신분을 속여 물의를 빚었다.”5)

당시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들은 주로 ‘무책임’하다는 사실로 비난을 받았다.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에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비난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책임’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특칭되기 시작한다. 이들 중 한 명이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여 방역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희생양 징후를 가지기에 충분했다.

지라르에 따르면, 박해자들이 범인을 지목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박해받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바로 그 소속에 있다(지라르 2018, 33). 인천의 학원강사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것은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다는 사실이었다. 모두가 무차별적인 감염의 공포에 던져진 상황에서 그 공포와 불안을 공유하지 않고 클럽에서 춤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은 비정상이었다. 따라서 사회적인 비정상으로서 취급받게 되었으며 박해받을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다. 위기의 시대에는 특히 누구를 정상적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징적 질서를 전제하며, 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분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문성훈 2010, 74-75).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배제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중간층이다. 이에 대해서 지라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재와 행동의 모든 영역에 비정상이 있다. 그리고 비정상이

5)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05190956003&sec_id=940100(검색일: 2021. 03. 31)

피박해자 선택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비정상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간층이다.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사회적 신분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멀어질수록 박해받을 위험은 그만큼 더 커진다. 지금도 하층 계급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은 쉽게 눈에 띈다(지라르 2018, 34-35).

공포가 만연한 비상(非常)의 시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20대 여성이라는 존재의 행동은 비정상적으로 취급받기에 충분했다. 먼저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 중심의 사회 및 권력의 외각에 있는 비정상이었으며 재산, 나이, 학벌 등의 모든 차이를 가로지르며 전파되는 코로나의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는 20대에 속해 있다는 것은 가장 평균적인 사회적 신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비정상이었다. 공포에서 벗어난 듯한 이들의 모습은 다수의 중간층에서 멀어진 것으로서 박해받을 위험의 정점에 있었다. 공포에 머물고 있는 가장 평균적인 사람들이 주류의 중심이 되고 이들의 정서는 질서가 된다(이찬수 2016, 225). 그리고 이 질서가 바로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20대 여성을 희생양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감염병을 확산시킨 이태원 클럽이 게이클럽이며 성소수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는 것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과 박해는 이미 정상(normal)이 되었고 박해의 대상들은 비정상(anomal)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이들이 비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그들의 차이점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던 소속집단이라는 이유가 희생양으로 선택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제대로 차이가 나지 않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Adams & Girard 1993,

9-33).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비정상’성은 체제 밖의 차이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라르에 따르면 이들이 희생양으로 선택된 이유는 우선 그들이 소속된 소수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 즉 폭력의 시작은 “체제 안에서 보자면 자기 체제가 갖고 있는 차이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달리 말해서 그 결과로 자신의 체제가 모든 것과 다르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의 체제가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를”(지라르 2018, 39) 두려움에 기인한다. 즉, 그들이 희생양으로 선택된 이유는 체제 내부에서의 소수집단이기 때문이지만 위기의 시대 그들에게 박해나 비난이 가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와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양의 징후는 소속에 의해 높아지고 폭력의 방아쇠는 차이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차이로 인해 차별을 부과하지 않는 사회는 거의 없다. 다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하는 이유는 위기의 시대 그들이 집단 전체와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20대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녀가 희생양으로 선택된 이유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그것도 잘못된 보도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자주 간다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유가 주요했다. 그리고 여기에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큰 요인이었다. 하지만 집단적 박해의 행위가 시작된 근거는 이 20대 여성이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K-방역으로 상징되는 공동체와 다른 집단과의 차별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바로 박해의 주된 이유인 것이다. ‘차이’가 아니라 ‘무차별의 가능성’이 이들을 비난하게 하고 박해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해 지라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처에서 ‘차이가 박해받는다.’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연히 희생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 문

화들이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갈수록 추상적으로 더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말로서, 이 말은 또한 항상 박해와의 투쟁이라는 필수적인 가면을 쓰고 나타나다. 가장 폐쇄된 문화 속의 사람들도 스스로를 자유롭고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들의 특별한 차이 때문에 그들은 아주 좁은 문화적 공간도 그 안에서는 아주 광활한 것으로 실감하게 된다. 이런 환상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아득한 옛적의 박해의 성향을 다시 되살아나게 한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과는 달리, 박해자들을 줄곧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은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차별화이다(지라르 2018, 40-41).

민족적, 종교적 소수파를 비롯한 체제 내부의 소수집단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연령별 소수집단이나 성적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관심의 대상이며 중간층과 멀리 떨어진 존재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관심과 집중이 모두 박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상의 시기에는 이들이 가진 차이는 체제 내부에서 용인되며 ‘차이’ 그 자체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폭력이 배출될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소속에 의한 그 차이는 희생양을 선택하기에 좋은 기준이 되고 이들이 체제를 다른 체제와 무차별하게 하는 시도들은 박해, 즉 폭력을 발생시키며 희생양을 말 그대로 희생시키게 된다. 이처럼 위기의 시대에는 체제 내부의 차이로 희생양을 선택하고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이 체제 밖의 차이를 상쇄시키는 순간 집단에 의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폭력이 시작된다.

4. 코로나 시대 폭력의 의미: 희생제와 희생양

코로나 시대, 즉 위기의 시대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지식인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전염병의 시대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권(human-rights)’이다. 위기의 시대 인권의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며 봉쇄와 개인정보의 노출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인권을 어떻게 축소시키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위기가 만들어내는 분쟁과 평화의 관계 및 종교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환기하며 그것을 개관하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이장희 2021, 37). 다음은 한국의 코로나 시대를 고찰하며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의 일부이다.

코로나 19와 함께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과 병행한다. ‘지금 이 시국에’ 신천지 종교 집회에 가서 예배를 본 중년 여성, 서울 자식 집에 올라온 대구 경북 지역 할머니, 제주도 맛집을 누빈 서울 강남 출신 해외 유학생, 클럽에서 춤춘 게이... ‘딱 욕하기 좋은’ 정보들이 사방에 흩날려다녔다. 정보의 출처는 ‘짜라시’도 가짜 뉴스도 유튜브도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였다. 방역 당국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개인정보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면 언론은 적당히 살을 붙여 확진자의 며칠간 삶을 재구성했다. 확진자의 부주의나 거짓말 같은 소재가 뒷받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미움의 소재가 된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타인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했다(변진경의 2020, 189).

위와 같이 코로나 시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고 ‘방역을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위기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차별과 혐오, 즉 특정한 인간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것이 집단에 의한 구조적 폭력이든 아니면 박해를 통한 것이든 그것은 곧 사회적 ‘악(惡)’이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에 자행되는 모든 폭력을 악이라고 단정하며 그것을 모두 배척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과연 어떤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지 위기의 시대 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라르에 따르면, 사회 문화적 위기의 시대에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도식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식은 인간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 ① 위기가 도래한다.
- ② 희생양을 찾는다.
- ③ 희생양들이 선택된 것은 집단이 비난하는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희생양 징후, 즉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④ 폭력이 발생한다. 위기의 책임을 희생양에게 씌워서 그 희생양을 없애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지라르 2018, 43-44).

위와 같은 도식의 구조는 신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페스트가 테베를 뒤덮었을 때, 돌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극악한 죄인을 추방하라는 신탁이 내려오고 오이디푸스가 페스트의 용의자로 지목된다. 절름발이이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는 희생양이 되기에 충분했으며 결국 그에게 폭력이 집중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폭력의 발현이 인류 문명

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집단적 폭력 행위가 위기에 던져진 한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폭력의 발현 현상을 지라르는 ‘희생제의’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그는 이것을 ‘폭력 속임’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지라르는 종교적 제의(祭儀)의 방식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위기 시대의 사회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희생양을 찾고 ‘폭력 속임’을 행한다고 주장한다(Wilson 2019, 147). 종교적 제의에서는 항상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희생양으로서 ‘폭력 속임’의 대상이다. 지라르는 “폭력을 속이는 것은 폭력의 배출구를 막지 않으면서 간간히 먹이를 던져줄 때에만 가능하다”(지라르 2004, 14)고 주장하며 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의 징후를 종교적 제의에 희생되는 제물에 집중시킴으로써 폭력은 희생물에 집중되고 사회는 안정을 찾게 된다고 설명한다. 위기에 처한 한 사회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희생양을 선정하고 그것에게 폭력을 가하는, 즉 폭력에 대한 방향 전환 혹은 폭력의 대체 현상, 바로 ‘폭력 속임’이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이다. ‘폭력 속임’을 통한 사회의 불만을 해소하는 종교적 제의, 곧 ‘희생제의’의 형식이 그대로 남아 현대 사회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라르의 설명이다.

희생제의는 공동체 전체를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려서 외부의 희생물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말이다. 희생제의는 도처에 퍼져 있는 분쟁의 씨앗들을 희생물에게로 집중시키고, 분쟁의 씨앗에다 부분적인 만족감을 주어서 반향을 탄 데로 돌려버린다(지라르 2004, 19).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원인과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불만을 해소하거나 약속될 수 없는 일상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서 위기는 점점 증폭되며 아울러 폭력의 분출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한다. 여기서 종교적 제의가 시작된 이래로 한 사회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무차별적으로 분출될 수 있는 폭력의 방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제의적 폭력, 곧 ‘폭력 속임’이다. 따라서 위기의 한국 사회도 폭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희생양을 찾아 집단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로 분석할 수 있다. 대구의 31번 환자와 인천의 학원 강사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양상은 그리고 어떤 소수집단에게 가해졌던 집단적 혐오는 그동안 인류가 위기를 극복했던 ‘희생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희생양’으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폭력 속임’의 현상은 위기의 사회가 나타내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폭력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종의 전염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억압된 폭력은 결국 항상 그 주위로 번져 나가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덮치기 시작한다. 이는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이 제시한 ‘수평 폭력’⁶⁾과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예방하는 제의적 예방책이 바로 ‘희생제’에 기반한 폭력의 속임이며 폭력의 배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제의적 예방책은 폭력의 무차별적인 파급을 막고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발생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제

6) 프란츠 파농이 이야기 하는 ‘수평 폭력’이란 억압을 당하는 계층이 억압을 하는 계층에게 불만이나 증오를 표출할 수 없을 때 주변의 다른 약자에게 증오의 감정을 분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Silverman 2009, 77 - 89) 참조.

의적 예방책의 부재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 태평양경제에 대한 테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지금도 동양인에 대한 살인이나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⁷⁾

희생양은 어떤 사회든지 위기의 순간에 생겨나게 되는데 원시 사회의 신화적인 제의로 간주되던 제의적 폭력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을 하나의 문화적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성희 2010, 73). 그리고 이것은 희생제의를 통해 희생양에게 폭력을 전환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적 합리성의 회복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31번 환자와 인천의 학원 강사 그리고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에게 가해졌던 폭력과 혐오는 말 그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 그 자체이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의 시대 전형적인 문화적 혹은 집단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지라르가 ‘희생제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희생제의를 없애려는 것은 무엇보다 바로 가까운 사이끼리의 분쟁, 경쟁 상태, 질투심과 언쟁이며 다시 세우려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이고, 강화시키려는 것은 사회적 일치이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 앞에 이제 열려져 있는 폭력의 이본질적 국면, 즉 폭력 이해의 왕도를 통해서 희생에 접근하며, 희생제의를 인간 존재의 모든 면과 참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지라르 2004, 19-20).

7)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045000009?input=1179m> (검색일: 2021. 04. 06).

5. 나오며

2020년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한국사회는 판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멀어지려고 애쓰고 있으며 강의실이나 카페, 식당 등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영위하던 일상의 공간과 가치는 모두 무너졌으며 거의 모든 체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람이 북적이는 과거의 일상은 기대하기조차 힘들어졌으며 무너진 일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절망에 익숙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절망과 무력감이 익숙한 시대에는 늘 폭력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전염병과 같이 원인과 책임을 알 수 없는 재난의 시대는 늘 폭력이 만연했다. 페스트가 휩쓴 유럽의 사회가 그러했고 스페인 독감 시기도 그러하였으며 금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이다.⁸⁾ 그리고 이러한 위기시대의 폭력은 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위기는 문화적인 것의 소멸을 가져오고 체제 내부의 차이에 대한 존중을 무력하게 만든다. 이 무력감은 선입견을 생산하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차이들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난의 대상은 복수할 수 없는 존재로 선정되고 내부의 응축된 폭력의 가능성을 그곳으로 집중시킨다. 61세 여성이며 동시에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던 대구 31번 환자는 그렇게 시대가 만들어낸 ‘무책임’한 ‘슈퍼 전파자’가 되었다. 그녀가 대구 지역에서 시작한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처

⁸⁾ 스페인 독감 시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자행된 폭력에 대해서는 (Gamble 2010, 114 - 122) 참조.

음 발견된 확진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 폭력은 중간층에서 멀리있는 집단으로 향한다. ‘사회적 비정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평균적인 사회적 신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선정한다. 봉쇄와 감염 그리고 죽음이 상주하는 공포의 상황에서 그 공포에 동참하지 않고⁹⁾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무책임한 사람들 그리고 성적 소수자와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학원 강사는 두렵한 희생양의 징후를 나타낸 것이며 동시에 다른 체제, 즉 외부 체제와의 차이를 소멸시키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폭력이 집중되고 실행된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한 위기의 시대에 발생하는 폭력, 즉 혐오와 배제 낙인찍기를 비롯한 수많은 구조적 폭력은 분명히 억울한 희생양을 만드는 집단적 테러이고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폭력의 도식, 즉 집단적 폭력의 도식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 이러한 폭력의 도식은 늘 성립되어 왔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희생양을 만들어 그들에게 폭력을 집중시키는 ‘희생제의’적 폭력 속임을 통해 사회는 집단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무차별적인 폭력을 피해왔다는 사실이다. 차이에 의한 폭력과 차이의 붕괴에 의한 폭력,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위기의 시대에는 상존한다. 그리고 폭력은 늘 폭력을 표출할 배출구를 찾는다. 희생제의적 배출구의 부재는 더 큰 무차별적인 폭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대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전염병이 다시 출몰할 것이

⁹⁾ ‘죽음의 공포에 동참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 첫 번째가 위의 젊은 강사처럼 유희와 향락의 방향으로 죽음의 공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공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이나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희생양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후자는 사회적 존경을 받는다.

라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그리고 코로나, 이러한 대규모 전염병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연달아 출몰한 것은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는 공포의 일상화 속에서 그리고 늘 다음 판데믹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를 좀 더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의 시대, 폭력과 폭력의 속임 그리고 희생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폭력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21년 4월 11일 접수, 5월 10일 심사완료, 5월 17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김동택 외. 2020.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한국국제협력단.
- 김진식. 2013. “르네 지라르 모방이론의 재인식: 모방적 욕망과 그 결과.” 『불어불문학연구』 . 96.
- 김홍중. 2020.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 54(3).
- 지라르, 르네. 김진식 역. 2018. 『희생양』 . 서울: 민음사.
- 지라르, 르네. 김진식/박무호 역. 2004. 『폭력과 성스러움』 . 서울: 민음사.
- 문성훈. 2010. “폭력 개념의 인정이론적 재구성.” 『사회와 철학』 . 20.
- 변진경 외. 2020. 『가늘게 길게 애뜻하게: 감염병 시대를 살아내는 법』 . 서울: 시사HN북.
- 보건복지부. 2015.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 보건복지부.
- 이시철. 2020. “코로나19, 대구의 초기 대응에 관한 주요 쟁점 분석.” 『한국행정연구』 29(3).
- 이장희. 2021.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인권법 평론』 26.
- 이찬수. 2016. “모방 욕망, 소수자 재생산과 그 극복의 동력: 르네 지라르의 폭력 이론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 8(2).
- 최성희. 2010.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영문학』 . 52(3).

- Adams, Rebecca and René Girard. 1993. "Violence, Difference, Sacrifice: A Conversation with René Girard." *Religion & Literature*. 25(2).
- Feierstein, Daniel. 2015. "Debates on the Criminology of Genocide: Genocide as a Technology for Destroying Identities." *State Crime Journal*. 4(2).
- Gamble, Vanessa Northington. 2010. "There Wasn't a Lot of Comforts in Those Days: African Americans, Public Health, and the 1918 Influenza Epidemic." *Public Health Reports* (1974-). vol. 125.
- Krishnadas, Jane. & Sophia Hayat Taha. 2020. "Domestic Violence through the Window of the COVID-19 Lockdown: a Public Crisis Embodied/Exposed in the Private/Domestic Sphere." *Journal of Global Faultlines*. 7(1).
- Rogg, Matthias. 2020. "COVID-19: The Pandemic and Its Impact on Security Policy." *PRISM*. 8(4).
- Roloff, Ralf. 2020. "COVID-19 and No One's World: What Impact for the European Union?" *Connections*. 19(2).
- Silverman, Max. 2009. "Frantz Fanon: Colonialism and Violence." *Postcolonial Thought in the French Speaking World*, edited by Charles Forsdick and David Murphy, 1st ed., vol. 4, Liverpool University Press.
- Stirling, Mack C. 2010. "Violence in the Scriptures: Mormonism and the Cultural Theory of René Girard." *Dialogue: A Journal of Mormon Thought*. 43(1).
- Wilson, Eric. 2019. "An Emoji for René Girard: Memes, Memesis, and the Apocalypse of the Eternally Irrelevant." *Post Memes: Seizing the Memes of Production*, edited by Alfie Bown and Dan Bristow, Punctum Book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What the Health Sector/System Can Do*.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15/NB5B4LFO75GXVBYM3IH5VBYPTI (검색일: 2021. 03. 29).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005190956003&sec_id=940100 (검색일: 2021. 03. 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7045000009?input=1179m> (검색일: 2021. 04. 06).

The Aspects and Meanings of Violence against covid-19
confirmed cases

*Sung Jin Park**

The era of social crisi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has produced numerous fears of death and has produced various violence. However, many violence is not recognized as violence, and there is no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violence.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and meanings of violence in Korean society in the Pandemic state, focusing on René Girard's theory. According to Girard, Social crisis brings about the extinction of cultural things and makes the respect for differences within the system helpless. And this helplessness produces preconceptions and, in normal times, makes a small number of people scapegoats and violence against them due to nothing. In addition, the violence of the crisis period is directed from the middle class to the distant group, and the concept of 'social abnormality' is created and the people who are far from the average social status are selected as scapegoats. Violence in the era of crisis caused by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ate and exclusion stigma, and numerous structural violence, mus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be avoided and avoided as a collective terrorism that makes unfair scapegoats. However, it is also undeniable that society has avoided indiscriminate violence that the whole group should deal with through the 'victim' s deception of violence that creates a scapegoat and focuses violence on them. We must live in the everyday life of fear and always preparing for the next pandemic. In this situation, we should be able to consider the times more objectively, and face the fact that there are crisis era, deception of violence and think about the meaning of violence again.

Keywords: Covid-19, Crisis, Violence, Sacrifice, René Girard

▪ 박성진(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 정치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최근 위기 시대의 정치철학 및 도덕과 도덕교육의 관계에 관해 연구 중임. 주요 연구성과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인’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과 토마스 힐(T. H. Green) 그린의 정치사상」(2016), 「The liberal acceptance of Hegel: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Hegelian Philosophy in 19th Century Britain」(2018), 「영장류의 사회적 행위를 통한 ‘정의(justice)’의 기원에 관한 연구」(2019) 등이 있음.